

2016년, 후원자의 밤에는



안녕하세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인턴간사 강은혜입니다. 지난 8월 26일엔 '후원자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역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되었던 시간이었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역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딪히는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 단체가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을 건의하는 시간, 평소에 가까이에서 뵙기 어려웠던 임원 분들을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들로 구성된 행사였습니다.

소박한 연주회

당일 후원자의 밤 행사는 소박한 연주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순수함이 듬뿍 묻어나는 장운석 선생님의 노래. 낭만과 함께 재치 있는 멘트까지 선보여 주신 장수영 교수님의 감미로운 기타 연주. 이어서 장운석 선생님과 장수영 교수님의 기타 협연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의 원곡인 'He Knows My Name'을 들으면서는 가사에 마음을 집중하며 나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연주회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듣는 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단번에 주목시키셨던 신성길 대표님의 시원한 트럼펫 연주. 사실 지금 와서 조심스



회사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럽게 하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차분하게 맞이하며 식사를 나눠 드려야 하는데, 시원
하고 리듬감 있는 트럼펫 연주를 들으며 자꾸만 발끝
과 몸이 움직여서 흥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박수치고 감
상하는 연주회를 통해 조금은 낮설었던 분위기들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ASK & ANSWER

손봉호 이사장님의 환영사와 김태항 교수님의 단체
및 임원소개에 이어 조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역회
의 임원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직접적으로 질문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참

석하신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던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질문과 토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NGO활동 혹은 국제 개발 같은 활동
을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 동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
임들의 활성화에 대한 건의, 정회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나눔, 후원자의 밤에 대
한 피드백 등 다양한 주제들이 부담 없이 오고 갔던
순서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삶을 살아가
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었
던 것 같습니다.

BE+LIVE+R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을 만나다



세계관동역회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삶의 현장, 구체적인 직업, 처한 위치는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삶의 고민과 질문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서로의 삶이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질문과 대화를 이끌어주신 임원님



좌부터 대학원생 장윤석 선생님, 대학원생 모임을 인도하는 장수영 임원님, 학술지 <신앙과 학문> 인쇄하는 진흥인쇄 신성길 대표님

후원자의 밤을 돌아보며

‘어떻게 이 거대한 시대정신에 물들지 않고 위치한 자리들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회와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준과 태도는 어떠한어야 하는가?’ 후원자의 밤은 끝났지만 명쾌한 마침표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여전히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자의 밤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익은 따뜻함과 격려였습니다.

삶의 현장, 구체적인 직업, 위치는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며 한 발을 내딛는 각자의 삶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받은 시간이었지요. 나누어진 이야기들과 건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동역회가 담아내야 할 사역의 내용과 그 방향들

역시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막내 간사이지만 이런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지요. 다음 후원자의 밤 모임 때에는 더욱 진솔한 질문과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을 안고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지켜 주신 모든 분들과 위치한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후원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회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인턴 강은혜였습니다.



글 | 강은혜